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⑤ 석굴암/불국사



이준훈  
포천시향장  
경기도문화원장예비사

석굴암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유산

석굴암과 불국사는 8세기 중엽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불교건축물로 당시 불교미술의 발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석굴암은 신라 전성기의 최고 절적으로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유산이다.

또한 불국사는 불교교리가 사찰 건축물을 통해 잘 형상화된 대표적인 사제로 독특한 건축미를 지니고 있다.

통일신라의 지배적인 사상은 불교였다. 이전까지 불교가 왕이나 귀족 등 지배계급에 의한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 기능하였기에 지배층이 주로 믿었던 것에 비해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오면 일반민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기 된다. 이것은 7세기 중반 이후 원효(元曉)와 의상(義相) 등 여러 승려들의 불교대중화를 위한 노력과 통일 이후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왕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승려들의 불교 교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많

은 저술이 나타났고, 8세기에 이르러 신라의 불교문화는 최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신라의 불교문화는 특히 미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통일신라시대의 미술은 삼국시대 미술의 소박함에서 벗어나 높은 미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대의 미술은 비록 사실적인 기법을 쓰고는 있지만, 그것은 실물 그대로를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미의 세계를 구현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작품 속에서 통일된 조화의 세계를 창조하려는 노력을 나타내고 있다. 원숙한 기교로써 이상적인 조화의미를 창조하려는 것이 통일신라시대 미술의 특징이었다.

이처럼 발전한 통일신라의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것이 석굴암과 불국사이다. 석굴암은 8세기 중엽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金大城)이 창건하기 시작하여 24년에 걸쳐 완공하였다.

석굴암의 석굴은 백색의 화강암 재를 사용하여 토함산(吐含山) 동쪽 정상 부근에 인공으로 석굴을 축조하고 그 내부 공간에는 본존불(本尊佛)인 석가여래불상(釋迦如來佛)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보살상 등 총 39체의 불상을 조각하였다. 석굴암의 석굴은 장방형의 전

실과 원형의 주실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360여 개의 관석으로 원형 주실의 공동전장 등을 교묘하게 구축한 건축 기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다.

석굴암의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 평면방형의 전실에는 좌우로 4구씩 8부신상(八部神像)을 두고 통로 좌우 입구에는 금강역사상을 조각하였으며, 좁은 통로에는 2구씩의 사천왕상(四天王像)을 조각하였다. 좁은 통로를 지나면 공명 돔(Dome)천장으로 짜여진 원형공간의 주실이 나온다. 주실 입구에는 좌우로 8각 석주를 세웠고 이곳을 지나면 평면원형의 주실로 본존불은 중심에서 약간 뒤에 위치하고 있다.

토함산 서쪽 중턱의 경사진 곳에 위치한 불국사는 석굴암과 마찬가지로 김대성이 창건하여 24년 만에 완공하였다. 불국사의 높이 8.2m의 삼층석탑인 석가탑(釋迦塔)은 각 부분의 비례와 전체의 균형이 알맞아 간결하고 장중한 멋이 있다.

그리고 높이 10.4m의 다보탑(多寶塔)은 정사각형 기단(基壇)위에 여러 가지 정교하게 다듬은 석재들 목재건축처럼 짜 맞추었는데 복잡하고 화려한 장엄미, 독특한 구조와 독창적인 표현법은 예술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국사



석굴암

한편, 석가탑에서는 1966년 10월 보수에 관한 해체 과정 중 2층 탑신부(塔身部)에서 나온 금동제 사리함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陀羅尼經)이 발견되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늦어도 751년 석가탑 건립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이다.

석굴암과 불국사는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 등록되었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하나됨의 사랑



박정근  
대전대학교  
영문학과교수

사랑은 연인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기에 수많은 밤을 번민하게 하고 서로가 갈망하는 애정을 찾아 해매게 하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사랑 없이는 단 하루도 인간적인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없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 또는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인간은 아무리 세속적 성공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마음의 공허함을 메울 수 없다. 사랑을 잃은 사람이 지금까지 피땀 흘려 얻은 모든 성공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귀중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기인한다. 영국의 황태자가 평범한 여인의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화려한 지위조차도 내던져버리는 것도 사랑이 인간의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반증해 준다.

요즘 미국과 한국 사회는 예기치 않은 돌풍으로

“그대가 젊음을 잃지 않는 동안 거울은 내 늙음을 믿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대의 얼굴에 주름을 볼 때, 내 일생이 다 탄 죽음을 느끼리라. 그대를 감싸고 있는 아름다움은 내 마음의 활옷이기에, 그대 가슴에 내 마음 살고, 내 가슴속에 그대 마음 사나니. 어찌 내가 그대보다 빨리 늙으리요. 그러하오니 그대는 몸조심하시라. 나 때문이 아니라 그대 위하여 쓰노라. 상냥한 유모가 얘기를 들 보듯, 그대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간직하노라. 내가 죽어도 그대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간직하노라. 내가 죽어도 그대의 마음을 찾아기려 하지 말라. 찾아갈 생각 없이 나에게 주었으니.

이러한 사랑의 원리는 연인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친구사이, 이웃사이, 지역공동체 사이,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자나 정신지체자도 확대해 나갈 때 사회는 분명 따뜻한 인간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조승희 사건이 터진 후에 미국 내의 충격과 치유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본 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한국민들은 이 사건이 인종갈등이나 차별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여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매우 초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나서서 미국 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을 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런 마음속에는 혹시 이 사건으로 죽어난 한국인이나 재미교포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시민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한국인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 사건은 한국인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신병을 앓고 있던 조승희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은 매우 흥분을 갖지 않은 성숙된 수준에서 가능하다. 더구나 그들은 정신병을 앓고 신음하고 있었던 조승희를 돌보지 못한 사회의 책임을 제기하면서 그 또한 비극적 희생자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추도의 대상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도 함께 넣어서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들을 모으려고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진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을 여러 이웃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이 사회는 분열증에서 벗어나 화해의 관계, 또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내가 너무 많이 가지면, 어느 누군가 공평에서 고통을 가질 것이고, 내가 너무 권력을 누리면, 어느 누군가 억압에서 억눌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의 이기적인 심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자, 다함께 젊음과 공평함이 넘치는 하나됨의 세계로 나아가자.

교육에세이 36

뜻을 높게 갖고, 능력을 집중하자

사랑하는 우리 포천의 학생 여러분! 지난 1월 20일 본란을 통해, 학생 여러분들에게 '큰 꿈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면서 여러분이 모두 저마다의 꿈을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차근 차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3월2일 2007학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시간은 빨라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새 생명이 약동하는 싹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도연명의 권학문(勸學文)에 성년 불중래(盛年不重來: 젊음은 거듭 오지 않고) 일일난재신(一日難再晨: 하루에 새벽이 두 번 오지 않으니) 급시당면려(及時當勉勵: 때가 되거든 마땅히 학문에 힘써라) 세월부대인(歲月不待人: 세월은 인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나오는데, 그 속 뜻은 학문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학문을 열심히 익히려는 권고의 시구(詩句)로서 배움에도 때가 있으니 젊은 시절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부대인(歲月不待人: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이라는 글은 자주 인용되는 구절로, 시간이 우리들에게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학창 시절이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극히 제한된 시간만을 제공 하는 것입니다. 그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적절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고, 가장 귀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며, 가장 달콤한 시간은 노력 끝에 성공한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변화의 양상이 경연적이고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를 읽고 그 변화를 즐기면서 '변화와 늘 줄'이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21세기는 진정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 지식정보(화) 사회, 지식 혁명시대로 일컬어지는 시점에서 첨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 창조력이 국가와 개인의 흥망과 성쇠를 결정하며, 과학기술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되는 지구촌에서 살고 일어나면 어제의 유용한 지식이 오늘은 벌써 경쟁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보사회는 인간과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티쿼티스(Ubiquitous) 환경이 조성된 멀티미디어(Multimedia)시대인 것입니다.

정보화, 세계화의 거센 물결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부터 국가 경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적용하면서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자기와의 반복적인 교화를 통해 자기 변화, 자기 혁신을 위해 노력하면서 내일이 자신의 힘을 다해 맡고도 힘찬 정상을 향하여 등반의 길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등반과도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목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헤매거나 제 자리에서 맴도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새 기운, 새 힘을

얻어 다시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마다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피아노는 조율할수록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유리창은 닦을수록 깨끗해지듯이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부단한 노력으로 자아 발전과 소질 개발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준비’는 행운을 맞이하는 징검다리입니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우연처럼 찾아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아울러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신의 주위 환경을 되돌아보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격을 갖춘 사람, 스스로에게 긍지를 갖고 있는 멋진 사람,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의 소중한 자녀이며, 장차 국가를 발전시켜야 할栋梁(棟梁)인 동시에, 아름답고 보람찬 인생을 영위해야 할 삶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저마다의 크고 높은 뜻을 갖고 능력을 집중하여 꿈을 실현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나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정주  
포천여자대학교 교장

Advertisement for 'Kotsem' (꽃샘) products.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ladybug on a green leaf on the left. The main text reads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담은... 꽃샘 종합선물세트' and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Below this, there are several product images in boxes, including '꽃샘고려삼품세트', '꽃샘토종고구리1호', '꽃샘토종고구리3호', '꽃샘특선봉밀1호', '꽃샘특선봉밀2호', '꽃샘 1호', '꽃샘 5호', '꽃샘 6호', and '꽃샘 4호'. Each product has a list of contents and weights. At the bottom, contact information for (주)꽃샘종합식품 is provided, including the address in Pocheon, phone and fax numbers, and website.